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동참... 각계각층에서 이어져! 모금을 시작한 이래 19억원이 넘는 성금이 접수됐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동참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 문제에 공감해 주시고, 성금을 기부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주신 성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에 소중한 사용하겠다"고 했다. 주관단체인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지난 3월 (사진=경북도 제공)

영양산나물축제 경북 넘어 대한민국 최고 축제...

관광객 12만명 영양인구8배
경제 파급 효과 무려 60억원
'영양원놀이' 원님 행차 시연
지역 문화 활력소...군민웃음

영양산나물축제 화보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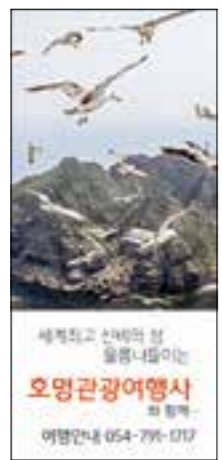
영양산나물축제가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 먹거리 축제로 발돋움하고있다. '제19회 영양산나물축제'에 무려 12만여 명이 방문하는 기록을 세웠다. 영양군 인구 1만5600명에 비해 8배에 이르는 수치다. 경제효과는 6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축제는 지난 9일부터 나흘간 영양읍 일대에서 '건강, 탄소중립, 착한가격'이란 주제로 열렸다. 영양산나물은 경북에서 가장 높은 일월산(해발 1219m) 자락에서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나다. 영양산나물축제는 청정 영양의 산나물 맛과 정취를 한껏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매력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축제를 앞두고 어려운 경제여건과 물가인상에 따른 방문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나물 판매가격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고기굽터에서는 시중가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한우와 한돈을 판매했다. 지역 상인들이 직접 참여한 전통시장 먹거리촌에서는 착한 가격으로 방문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1219인분 산나물비빔밥 만들기, 일월산 산나물 채취체험, 양수발전소 유치 기념 콘서트, 영양산나물 전국가요제, 별이 빛나는 밤에 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체험·먹거리 프로그램도 관광객들에게 알찬 재미를 선사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앞으로도 영양산나물축제가 많은 방문객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사기간 영양원놀이 원님 행차 시연은

지역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영양군이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단이 후원했다. 영양원놀이를 원님 행차는 고층 내용을 반영한 대규모 원님 행차로, 원님을 비롯한 육방(읍·면·장), 취타대, 기수, 풍물대, 가마꾼 등으로 구성됐다. 영양원놀이보존회, 영양군이장협의회, 영양군새마을지회 등을 비롯한 10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차이다. 행차는 영양문화원을 시작, 영양읍 시가지를 돌며 원님 행차를 시연했다. 영양원놀이 공연을 선보여 축제 기간 중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전례없는 행사라는 평을 받았다.

군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사업비 1억 2000만 원) 및 올해 문화재단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 공모사업(총 사업비 8000만 원)에 선정됐다.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군에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시행, 영양원놀이의 전통성 및 대중성 확보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원님 행차를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영양군의 고유한 무형문화유산인 영양원놀이를 지역 고유문화를 계승·보존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은동 기자



단체장 일정
류규하 대구구청장은 13일 오후 구청상황실에서 열리는 '청렴실천협의회'에 참석한다.
윤석준 대구구청장은 13일 오후 구청상황실에서 열리는 대구지방변호사회 후원물품 기탁식에 참석한다.

손병복, 사람 모이고 일자리 넘치는 울진 건설

군민 섬김데이...민생·경제 활력 찾는 민생 현장투어

손병복(사진) 울진군수가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기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손 군수는 지난 9일 매화면을 시작으로 2024군민섬김데이민생현장투어에 나섰다. 매화면 방문은 지난 2일 평해읍에 두 번째다. 울진군노인요양원, 사회적경제기업, 마을회관 등을 방문했다. '군민 섬김데이'는 손병복 군수가 군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생활민원이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울진군 노인요양원을 찾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울진군수 초청 특강으로 민선8기 군정 운영 방향 및 군정철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수 기자

이후 △사회적경제기업4개사(신흥2리 바람길꽃마을(주), 농업회사법인 대성(주), ㈜드림앤해피워크, (영)매아전통식품)과 △매캐떡사업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손 군수의 기업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덕신리 마을회관을 방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며 경로당 공동 취사제 운영에 불편사항은 없는지 일일이 살펴보았다. 손 군수는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활력을 찾아야 울진 경제가 산다"라고 말했다. 그는 "3high(고급리, 고품질, 고물가) 악재로진 퇴양년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성공적으로 조성이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울진으로만 들어나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군정의 기본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소통하며 울진군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경수 기자

홍준표, 與 대구 당선인들 만난 이유?

TK신공항 SPC, 5월내구성
홍 시장 미묘한 시점에서
당선인들과 만난 자체가
차기 당·대권구도 염두 둔
세걸침이라는 지적 나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대구 수성구 호텐인터블고에서 제22대 총선 대구지역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정방향 및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시정 현안 등을 건의했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대구경북신공항과 대구국제공항 후적지 개발 방안 등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며 22대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대구사에서 홍시장과 행정·경제부시장, 정책특보와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실장, 미래혁신성장실장이 참석했다. 당선인 측에서는 6선의 주요영(수성구갑) 의원을 비롯한 10명이 참석했으며 윤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블고호텔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재욱(달서구), 김상훈(서구), 추경호(달성군) 등 3명의 현역 당선인은 각각 해외 출장과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홍 시장은 간담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후적지 개발을 위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공동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선인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악화된 부동산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경북신공항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을 5월 내로 완료할 계획으로 실무 절차를 밟고 있음을 밝혔다. 대구 도심의 군부대 이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구성과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특별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당선인들의 지원을 주문했다. 상호 인사말이 끝난 이후 오찬 겸 자유토론은 언론 비공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안 사업과 관련된 대구시와 국회의원 간 소통문제와 최근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당선인들은 이번 간담회가 새로운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구시의 현안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 등을 위한 정책간담회 성격임을 강조하며 정치적 의미를 경계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연일 각종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 홍 시장이 미묘한 시점에서 당선인들과 만난 자체가 차기 당·대권구도 등을 염두에 둔 세 걸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여은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경상북도 지정 우수축제 www.sj.go.kr/sjlife

2024 성주참외 & 생명문화 축제

5.16 목 길놀이 | 군민 길놀이 | 태봉안 행차 재현
5.17 금 개막식 | 김중국 | 레계 강 같은 명화 | 옥종안반도 | 김수현
5.18 토 태교음악회 | 참가가요제 | 김필 | 온도 | 제나스 | 이예준 | 조항조 | 박주희 | 조영구
5.19 일 드림페스티벌 | 별외를다리기 | 노보래인 | 21학번 | 김별리 크루

2024. 5. 16 목 ~ 19 일 성주 성밖숲



군위군, 1석 3조 고향사랑기부, 경품 혜택 추가요~

군위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8일부터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게 담례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에서 이벤트 기간 중 군위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참여자는 자동응모되며 그 중 30명을 추첨해 다음달 5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마음과 세액공제혜택, 담례품 제공해 1석3조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번 경품 이벤트까지 실시해 1석4조의 혜택이 돌아

가게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하고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e음(lovegohyang.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을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아이키우기 좋은 군위만들기...출산·양육 지원정책 총력

“출생부터 고등학교 입학까지 최대 6250만원 지원한다”

군위군이 출산장려 정책에 사활을 걸었다. 군은 지난 3월 아이조아센터 개소를 필두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군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출산양육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생동난자 사용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부 등록 시 연산제, 철분

제, 비타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태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이외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운영한다. 주민등록상 군위군에 거주하는 모든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게 출산지원금을 대구경북권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첫째는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첫만남이 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을 포함해 4460만원을 지원받는다. 둘째부터는 “대구시 출산양육지원금”이 추가 지원돼 5030만원, 셋째 이상은 62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군위군의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재단(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우수대학 진학 장학금, 희망장학금 등 대학

진학생 장학금으로 매년 2억여원, 중·고 성적 우수장학금으로 매년 4천만원, 예체능대회 입상자에게도 매년 6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인재 성장의 디딤돌을 다지고 있다. 군위군 보건소는 현금성 지원사업 뿐 아니라 직접 서비스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조아센터를 활용한 건강증진 교육과 체험놀이실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새

롭게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군위 건설에 있어 ‘아이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군위 만들기’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결혼·출산·양육이 고민이 아닌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아이 웃음소리가 나는 군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북구청, 청년 창업 공간 창업놀이터 개소식

창업 실현과 성공의 꿈 키우는 공간 북구청은 지난 9일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창업놀이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창업놀이터는 경북대 혁신타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상 3층, 연면적 384㎡ 규모로 신축 조성했다. 지난해 11월 준공해 10개의 개별오피스와 오픈라운지, 휴게실 등을 갖추었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해 창업 실현과 성공의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이다. 구에서는 2022년 개소한 청년놀이터(청년창

업 코워킹공간) 운영과 더불어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창업초기자금 지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청년창업 특례보증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창업놀이터에는 지난 1월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년창업가 10팀이 3월부터 입주해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들과 연계해 사업화 지원금, 창업 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창업활동 지원을 받고 있다. 이날 개소식은 배광식 북구청장과 구의원, 산격3동 주민, 입주기업 대표 및 청년 등이 참석해 사업 경과보고, 개소사, 입주기업 소

개, 테이프 커팅, 내부시설 관할 순으로 진행됐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실리코밸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와 유니콘기업의 성장 사례를 들며 “창업놀이터에서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이 성장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으며,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인구 유입으로 향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미경 기자

달성군, ‘어버이날 기념 효(孝)콘서트’ 개최

달성군은 지난 10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노인복지관 3개소 연합 2024년 달성군 어버이날 기념 ‘효(孝)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노인복지관의 어버이날 행사는 달성군 노인복지관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각각 진행했다. 올해는 작년 6월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개관으로 달성군 내 노인복지관이 총 3곳으로 늘었다는 점과 행사 시 어르신들을 한자리에 모시고자 하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노인복지관 세 곳에서 연합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포함해서 도원 달성군의회 의장 및 시군의원, 복지관별 어르신 300명 등 총 1000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노인복지관장 3명의 개회선

언을 시작으로 복지관별 최고령 어르신들께 정려장 전달, 내빈 축사, 어르신들과 내빈이 함께하는 퍼레이드, 감사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가수 정미애, 황태자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 노인복지관 회원 어르신은 “평소에도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이날은 친구와 함께 의미있는 행사에 참석해 옛 생각이 나는 퍼레이드도 감상하고 콘서트도 즐길 수 있어 더욱더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뜻깊은 행사에 초대받아 어르신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어 좋았다.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노후와 복지를 더 꼼꼼히 챙겨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시, 청년도전 지원사업 ‘젊핑’ 신청하세요

‘젊핑’ 25주 과정 참여자 모집... 구직단념 청년 대상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수당 지급



대구시와 대구시청년센터는 오는 13일부터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

시설 입·퇴소 청년 등을 대상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 ‘젊핑’ 25주 과정 참여자 75명을 모집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청년의 구직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외부기관 연계 참여, 자율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6주당 40시간)을 운영하고, 5주당 32시간 이상의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참여수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나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5주, 15주, 25주 과정으로 운영한다. 15주 과정은 현재 운영 중(3~6월)으로 100여 명의 참여자들이 곧 이수를 앞두고 있다. 5주 과정은 하반기에 모집·운영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대구시청년센터와 함께 지난 '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멘토를 통해 중도 포기 예방 및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 공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참여청년 대상 설문 결과를 보면 94%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25주 과정은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5월 13일(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구직문답표 등 참여자격 요건 확인 후 최종 선정한다. 참여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청년커뮤니포털 젊핑(dgjump.com)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구시청년센터 전라기획팀(☎426-19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구직의욕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결합한 사업으로 청년들의 호응도 높은 편이다”면서, “이번 모집에도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사회진입 활동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 테크노폴리스 랜드마크 공원 조성 설계공모 당선작 확정

‘과학관공원 리뉴얼 사업’ 청사진 확정 2025년 말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달성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과학관공원 리뉴얼 사업’ 설계공모의 당선작이 이달에 최종 확정됐다. 달성군은 유가읍에 위치한 과학관공원을 달성군 대표 공원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설계공모를 추진해 주식회사 에스엠에이(대표사)의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테크노폴리스의 중심에는 3개 공원, △과학관공원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포산공원이 조성돼 있다. 그중 과학관공원은 공원부지가

지만 저류지로 중복으로 지정 돼있어 이용과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군은 그로 인해 방치돼 공원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을 해결하고자 과학관공원의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원을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충족하는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 리뉴얼 사업을 위한 설계공모에는 총 3개 회사가 참여했다. 경북대영남대원광대 등에 소속된 조경토목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 7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저류지를 포함한 지형적 특성과 수위 변동의 구조를 감안한 공간구획, 다양한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과 4계절 이용을 고려한 식재 특화 방안, 세부 디자인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달성군은 과학관공원 리뉴얼 사업에 설계를 비롯한 용역비 5억 원, 공사비 65억 원 등 70여억 원을 들여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동구청, 공항후적지 개발 직원역량강화 특강

동구청은 지난 9일, 동구청에서 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후적지 개발 직원역량 강화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항이전 및 신공항 건설 확정 이후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준비 등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항후적지 개발의 추진상황 및 미래비전에 대한

직원 이해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 후적지개발 총괄 계획자이자 미래공간기획관인 에드워드 양 박사가 강사로 나서 수변공간이 가진 글로벌 도시브랜딩 및 도시활성화의 중요성을 주제로 진행했다. 조미경 기자



제19회
영양산나물축제
성황리 마무리





경북교육청, 2024 교육공무직원 현장 체험 연수 시행

경북교육청은 8~10일까지 울릉도와 독도 일원에서 2024년 교육공무직원 현장 체험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울릉도

와 독도 체험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대상자는 소속 기관(학교)과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조직내 귀감이 되고 업무 추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조리원과 교무실무사 등

32명의 교육공무직원이 선정됐다.

행사에서 독도박물관 견학을 통해 역사를 배우고 직접 '우리의 땅' 독도를 밟으며 그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수 과정에서 타 기관(학교) 소속 동료들과 업무 관련 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직장인 10명 중 6명 “가족 있어 휴직 못해”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가족돌봄휴가 제도 실효성 확보 시급”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9%는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70.5%), 5인 미만(72.1%), 월 급여 150만원 미만(73.9%)의 경우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70%를 넘겼다.

공공기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38.2%로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공공기관에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휴직 신청 100일이 지난 뒤에서야 ‘휴직 사용 불가’ 통보를 하고, 사용자가 막막까지 했다는 상담이 들어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사용할 권리가 규정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있는 가족 구성원조차 돌볼 시간을 주지 않는 사회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돌봄을 경시하는 관행과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심지어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도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사업주의 ‘일과 삶,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며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청렴한 학교 안전한 통학로 우리 함께 만들어요~

경북교육청, 스쿨존 청렴 캠페인 지역사회 청렴 문화 확산 총매진



경북교육청은 10일 안동에 있는 꿈빛유치원과 풍천풍서초, 풍천중 등 도청 신도시 통학로 일대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스쿨존 청렴 계몽운동’을 했다. 계몽운동에 경북교육청 감사관과 소속 직원,

경북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 25명이 참여, 학생 등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약한 시간 동안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지역사회 청렴 확산을 위해 다가오는 스승의 날과 관련해 알아할 청탁금지법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 홍보물을 배포했다.

교통안전 피켓 등을 활용하여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안내 등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를 함께 시행하며 학생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김봉갑 감사관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모든 직공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문화 확산 활동을 통해 더욱 청렴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대구교통공사, 가정의 달 “삼계탕 나눔 행사” 대구교통공사 참사랑봉사단 칠곡지부는 어버이날에 국우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동호동 주변 관내 어르신 60여 세대를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동호동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40여 명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참석해 따뜻한 삼계탕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사랑봉사단 칠곡지부는 ESG경영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현금지원, 독거어르신 주거개선 봉사,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센터 물품 후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대구교통공사 김기혁 사장은 “이번 행사에 함께 해주신 어르신 모두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나눔과 섬김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대구교통공사 제공)

새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완료...21일 첫 회의서 위원장 선출

14일부터 임기 시작...2027년 5월까지 심의 참여 ‘1만원’ 넘길지 관심...1.42% 인상시 첫 1만원 시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담당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구성이 완료됐다.

최임위는 오는 21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2027년 5월13일까지 3년 간 최저임금 심의를 담당할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촉은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27명 중 13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과 보궐 근로자위원 1명이 대상이다.

공익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환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하현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근로자위원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션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박용락 전국금속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장도준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기획교섭실장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부장이다.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이경숙 ㈜뷰티플라센 대표이사 △김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다.

이들은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견례 겸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다. 또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심의의 관건은 역시 시간당 ‘1만원’을 넘기는지다.

지난해 심의한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1만원까지 불과 140원(1.42%) 남아 사실상 1만원 돌파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최종 부결됐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심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에만 적용돼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을 외국인 고용으로 풀면서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해 다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보다 나은 농어촌
fb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친제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농지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차령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ki**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청·농지전공

“나부터 청렴하GO! 우리 함께 청렴하GO! 모두 청렴하GO!”

ki 한국농어촌공사 **fb** 성주지사



한국건강관리협 경북지부, “검진받으러 오실 때 신분증 꼭 가져오세요”

5월 20일부터 검진검진시 신분증을 꼭 가져와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

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QR코드 형

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아 자격을 인증하면 된다. 단, 19세 미만 환자, 응급 환자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는 “신분증 확인이 안돼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신분증을 꼭 챙겨오시라” 당부했다.

Table with market data: 코스피 (+15.49) 2,727.63, 코스닥 (+5.99) 864.16, 연화 (+1.50) 880.91, 유가 (-0.51) 1,706.29, 환율 (+5.50) 1,372.50, 금(金) (+1,733.11) 104,104.18

나라빚 초비상... 세수부족에 나라곳간 텅텅...

전국민 25만원 풀었다간 또 '빚잔치' 1분기 관리재정수지 75조3천억 적자



세수부족에 1분기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곤두박질했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주당이 내수활성화를 위해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빚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3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월별 기준 집계 이래 3월 누계 기준 가장 큰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단순 제외한 통합재정수지(-64조7000억원)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10조6000억원)를 제외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신속집행 등 지출증가로 총지출 진도율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세수는 예상 실적을 미달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졌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이었다. 신속집행 연간계획(252조9000억원) 중 106

조1000억원이 3월까지 집행되면서. 집행률은 41.9%로 전년 동기 대비 7.8%포인트(p)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1.7%p 상승한 32.3%였다. 반면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23.1%로 지난해 25.3%보다 2.2%p 낮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세금 규모는 367조3000억원이지만 1분기에 4분의 1 수준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득세는 7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는 전년보다 5조5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한 55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리재정수지 수준은 정부가 올해 연간적으로 예상했던 규모의 82.2%에 달하는 수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주희 기획재정건전성과장은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2014년 재정동향부터 월별 기준을 집계한 이후 3월 누계 기준으로 가장 큰 숫자”라며 “다만 관리재정수지는 월별 수입 및 지출 여건에 따라 등락하는 경우가 있어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예산 기준 91조6000억원 규모를 정확하고 있어서 작년과 같은 큰 요인이 없다면 그 정도(계획 규모) 내를 예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처분제 법률을 활용해 민생지원금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 북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

역화페로 지급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13조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수 경기 부진 등으로 추가 세수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5월까지 법인세 실적 악화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류세 환원 요원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속도도 늦어지는 것도 고민 지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이 3-5월 계속될 것 같고 유류세 환원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이 예상만큼 올라오지 않아 불안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 그리고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좋아질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DGB대구은행, 가정의 달 기념 '사계절 김치 나눔' 행사 후원. DGB대구은행은 사랑의뽀나눔터에서 '사계절 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지난 9일 오후 진행된 이날 봉사활동에는 DGB대구은행 임직원으로 구성된 동행봉사단과 대학생 홍보대사 20여 명이 참여했다. 포장한 김치는 대구 지역 소외계층 어르신 178세대(세대당 4kg)에 전달됐다. (사진=대구은행 제공)

한수원, 마포구 흥대 안심가로등 점등식

스마트 안심가로등 설치 범좌·인명사고 예방 기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서울 마포구 흥대 레드로드 일대에 스마트 안심가로등을 설치하고, 9일 '안심가로등 점등식'을 진행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모두 9개 안심가로등 설치 지역을 선정했으며, 흥대 레드로드 일대에는 총 23본의 안심가로등을 설치했다. 가로등 설치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은 물론, 범죄 발생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가로등은 방범 취약지역 주민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한수원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한수원은 2014년 서울 홍제동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전국 75개 지역에 총 3222본의 안심가로등을 설치했다.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 태양광으로 빛을 내는 안심가로등은 일반 가로등보다 1.5배 밝으면서도, 자정 이후에는 밝기가 조절돼 빛 공해 저감에 효과적이다. 충전 기능이 있어 해가 없는 장마철에도 최대 7일 동안 작동한다. 이번에 안심가로등 최초로 CCTV, 비상벨, 영상감지센서, 점멸기 등이 결합된 스마트형 가로등을 설치해 주민의 안전과 편의, 관리의 효율성까지 높였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스마트 안심가로등이 범죄는 물론, 인명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국 방방치치 지역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펼쳐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 국토부 인정”

접수 444건 중 323건 위반업소 수사 의뢰

대구시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TF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 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 피해자 상담, 주요지원 정책 안내 및 지원연계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8일 현재 444건의 피해사실을 접수해 사실조사를 거쳐 국토부로부터 323건에 대해 피해인정을 결정받았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수도권(62.2%) 및 대전(13.4%), 부산(10.8%)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 등 그 외 지역은 자체조직(TF)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센터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는 경우 경·공매 절차 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 법률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 임대, 피해주택 단수 유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의 추가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의 추가적인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구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수사 의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만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 약유의사항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해 법률·금융·주거 분야의 상담을 한다. 국토교통부와도 긴밀히 협조해 피해자 결정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조사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 현재 피해자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향후 보다 강화된 피해자 지원이 기대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대구시에 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여은 기자

경북개발공사 '청년 공공임대 11가구' 공급

경북개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12일 구미에 청년 공공임대

주택 11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다음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임대공고 게시판을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은진 기자

LH, 올해 청년 주택공급 3.3만 가구...

20% 이상 확대

LH가 올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해보다 20% 이상 물량을 확대해 3.3만 가구 수준의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주거 전담조직인 국토부 청년주택정책과를 신설했다. LH는 지난 4월1일 청년 주택공급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청년주택 공급 이행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했다.

LH 청년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본부장을 단장으로 청년주택팀과 연구지원팀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LH 청년주택 공급을 통합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까지 청년이 만족하며 거주할 수 있는 임차 등을 반영한 주거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LH는 청년주택추진단을 필두로 전사적 청년주택 확대 공급 및 청년주택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유관부서 및 실무자간 협업체제도 구축했다.



경주시, 해수욕장 4곳 운영 계획 내놔

경주시가 오류, 나정, 봉길, 관성 등 해수욕장 4곳의 개장일을 확정하고 운영 계획을 내놨다. 시는 해수욕장 운영 시기를 7월 12~8월 18일 까지 38일 간으로 결정하고 해수욕장 관리 계획

을 확정했다. 운영시간은 해수욕장 4곳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관리운영은 해당지역 해수욕장 번영회가 맡기로 했다.

앞서 시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시기와 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지난 3월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및 현황조사 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촌·봉길·관성해수욕장에서 바다시정을 운영하며 피서객 편의와 안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APEC 유치 모든 준비 마쳤다... 유치 뿐이다

주낙영,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참석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당위성 피력

한국언론학회가 창립 65주년을 맞아 지난 9~11일까지 화백컨벤션센터 및 코모도호텔에

서 '2024년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언론학 100년, 성찰과 전망의 경주제전(慶州祭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연인원 600여 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9일 경주 코모도호텔, 10~11일에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대회의 대주제 세션은 '언론학 100년, 성찰과 전망'으로, 100년에 걸친 언론학 연구의 여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언론학의 성과 및 미래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세계언론학회(ICA)는 매년 전 세계 약 1만 명의 언론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고 국제언론

학회가. 행사에 참석한 주낙영 경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이자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도시 경주에서 대규모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전년고도 경주가 전국에 알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 시장은 2025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주의 당위성에 대해 피력을 하면서 "APEC 유치를 모든 준비를 마쳤고 모든 것을 걸었다. 오는 6월 반드시 경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경주시, 도로 개설 사업 속도도 붙었다

보문관광단지 불국동 잇는 3.1km 도시계획도로 추진

경주시가 '사통팔달' 지역 곳곳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천군동과 구정동을 직선으로 잇는 '보문~구정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로는 보문관광단지와 불국사 일대를 연결하는 4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도시계획도로로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줄이기 위한 개설 목적이다. 그간 보문관광단지와 불국사 및 울산을 잇는 도로 4번 국도가 유일했던 탓에 교통량 분산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는 총 사업비 450억원을 들여 2027년 하반기까지 총 연장 3.1k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까지 사업비 91억원을 들여 6만 8443㎡에 대한 토지를 보상했다. 나머지 3만 5682㎡에 대한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며, 시는 오는 12월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한다. 오는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올 하반기 착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보문~구정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면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불국사와 보문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도로 개설 공사가 끝나면 불국동, 보덕동 주민들이 4번 국도를 우회하지 않고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관광객들의 접근 편의성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 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킨다

경주시,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 4년 연속 최우수(SA)등급

경주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공약이행 완료 △공약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 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SA등급~D등급 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지난해 연말 기준 민선8기 총 127개 공약 중 90개 사업에서 70.8% 공약이행률을 보였다. 전국 기초 지자체 평균 34.2%를 크게 상회

하는 수치다. 임기 내 계획 대비 재정확보율은 55.6%로 평가 지자체 중 최고 수준으로 많은 공약 재정을 확보했다. 지난해 경주시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육성 △중은 일차림단 신성장산업 육성 △온(溫, ALL)가족 행복누리 도시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 농어촌 등 10대 분야, 127개 공약을 확정하고 추진했다. 지난해 공약이행점검 주민배심원 35명을 위촉하고 3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촘촘한 그물망 계획을 완성했다. 신라왕경 14개 핵심유적 정비복원 추진, 제2 동공원 조성, 중수로 해제기술원 확충,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건립, 신농업혁신타운 조기 조성, 부패 제로 클린경주 실현 등 핵심공약을 포함한 90개 공약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완료 및 이행'으로 평가됐다.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황성공원 원형복원,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경주역 부지 도심뉴타운 건설 등을 포함한 34개 사업은 임기 내 완료가 예상돼 '정상추진'으로 확인됐다. 시 누리집에 공약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시장공약사항 관리지침에 따라 공약평가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한 점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낙영 시장은 "시정에 적극 협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4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SA) 등급을 받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대학 3곳 시민 특성화 교육 운영 '맞손'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은 지난 9일 지역 3개 대학들과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운영사업'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최인숙 평생학습가족관장과 동국대학교, 신경주대학교, 위덕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각 기관 대표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평생학습 차원에서 관·학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 체계 조성에 뜻을 같이했다.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운영사업은 지역 대학들의 유휴 학습공간과 우수한 교강사진을 활용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민캠퍼스를 조성해 시민들의 학습역량 강화하는 사업이다. 대학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향상시켜 관·학 상생발전도 도모한다. 대학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동국대학교는 로컬 크리에이터 되기 외 6개 과정, 신경주대학교는 딱 제조기능사 외 3개 과정, 위덕대학교는 원예 힐링 심리상담사 2급 자격취득 과정 외 4개 과정을 각각 개설해 운영한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울진



영덕 마을회관 준공식 개최

영덕군 남정면은 지난 9일 김동희 영덕부군수, 황재철 경북도원을 비롯한 지역 기관 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사리 마을회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축된 마을회관은 2022년 10월 총사업비 4억 8000만 원(도비 50%, 군비 50%)으로 착공해 건축면적 130㎡(약 39평) 규모로 준공됐다.



청송 가정의달 재능기부 활동

청송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노인요양 시설인 태양의 집을 방문, 카네이션 50여개를 전달했다.

카네이션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50여명이 직접 모종을 텃밭에 심은 후 꾸준히 가꾸고 화분에 옮겨 담아 준비했다.

재능기부활동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그 기쁨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예쁘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청도군 매전면, 기부 릴레이

청도군 매전면이 나눔 실천으로 따뜻한 기부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동산영농조합법인 아동복지기금 300만원, 매전면 이장협의회 청도 발전의 밑거름인 훌륭한 후배 양성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금 200만원, 익명의 매전면 지천리 출향인이 살고 싶은 청도를 만드는 청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100만원, 익명의 기부자가 소외 계층 특화사업 재원인 함께모아 행복금고에 100만원 및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1회방 청도' 저출생 극복성금 100만원을 기탁해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를 불어 넣었다.

유경미 매전면장은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매전면에서 시작된 따뜻한 기부 물결이 나눔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청도군, 군민 체감 만족도 높은 정책

청도군은 지난 9일 대회의실에서 장상열 부군수 주재로 시·군평가 지표 팀장 및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시군평가 종합대회를 가졌다.

시·군 평가는 경북도가 매년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해 국가 주요시책과 도역시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올해 시군평가 대상으로는 정부합동평가 연계 지표 95개, 도 자체 개발 역점시책 9개 지표 등 총 104개 지표(정량 89, 정성 15)이다.

정량평가는 각 지표별 목표 달성여부, 정성평가는 도 요약서 인용률에 따른 배점으로 평가한다. 회의에서 시군평가의 올해 추진 방향과 일정을 공유했다.

전년도 미달성 지표에 대한 분석, 신규지표 및 산식변경 지표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해당 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한 각 팀의 추진계획과 대책 등을 보고했다.

군은 앞으로도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매일 실적을 점검하고, 지표담당자와 수시로 1:1 면담을 하는 등 실질적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 조여은 기자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이서면 다문화 투어

청도군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문화가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관내 관공서 견학 투어를 진행했다. 행사는 이서면사무소에서 다같이 모여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탐구하는 시간과 부모님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화합을 다진 뒤 청도 박물관에서 열리는 '5월 5일에 만나는 단오체험 행사'에 참여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했다. 조여은 기자

김광열, 2024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 군민 곁에서 귀 기울이는 행정

김광열(사진) 영덕군수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 본부가 발표한 '2024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를 획득했다. 평가는 전국 226개 시장·군수·구청장의 민선 8기 선거공약에 대해 2023년 12월

청송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 독려

청송군은 이달 10일 기준 2024년 부과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과 작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해 독촉 고지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대기환경 관련 개선사업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환경연구개발비 등 깨끗한 환경보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독촉분 고지 대상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6580여 건, 1억7800만원)이며 부과 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환경관리과 환경정책팀(054-870-6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병문 기자

울진군, 임산물 브랜드 이미지 향상 노력

산림소득 유통·가공분야 공모 오는 17일까지 접수

울진군은 오는 17일까지 2025 산림소득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

임산물 유통·가공 시설 지원을 통한 임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다.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유통·가공분야 시설의 교체 및 보완 등을 통해 시설의 현대·규모화를 목적으로 지원한다.

울릉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1차 심사보고회

공정 객관적인 평가 추진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울릉군은 지난 9일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2024 울릉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1차 심사보고회'를 가졌다.

울릉군 주요업무 평가위원회는 위원장(박상연 부군수)과 11명(민간위원 포함)으로 구성됐다. 군의 주요업무 성과관리 및 업무평가의 기본 방

말 기준으로 △공약 이행 완료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지도 등 5개 분야 평가 항목별 세부 지표를 평가해 최우수인 SA등급부터 F까지 6등급으로 분류했다.

김 군수는 임기 전반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완료 또는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이 33%, 정상 추진 공약이 65%로 나타났다.

공약 이행 또는 목표 달성, 주민 소통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도내 군부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됐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 실천 계획수립 평가에서도 주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군민이 요구하는 정책을 공약사업으로 확정, 주민배심위원회를 통해 군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실천 계획을 수립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김 군수는 "민선 8기를 시작하며 군민과 약속했던 공약사업을 착실히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은 관공서에 대한 당연한 소임"이라고 말했다.

울릉군,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대통령 표창 수상

수산자원조성 필요성 홍보 대국민 공감대 확산 기여

울릉군이 '제12회 바다식목일'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0일 포항시청 대강홀에서 열렸는데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주관했다.

시상식은 해양 생태계 복원에 큰공이 있는 기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한다.

울릉군은 동해안 연안생태계 복원사업 유치 및 수산자원 조성, 울릉군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산자원조성의 필요성 홍보를 통한 국

가정책사업 기여 및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이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남한권 군수는 "바다식목일은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 바다숲을 조성하고 바다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울릉군은 이미 조성된 바다숲이 잘 자라도록 사후관리를 강화, 천부해조종양대를 활용 전국 최초 보이는 바다숲을 통해 일반국민 및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바다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다식목일'은 바다식물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과 바다식목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바다숲의 가치와 조성 성과에 대한 인식 및 참여 확



대를 위해 매년 5월 10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제12회 바다식목일' 행사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 남한권 울릉군수, 전국어업인 단체 및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정윤환 기자

영양보건소, 초·중·고 흡연예방 교육

학생들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도움 집중홍보

영양보건소는 오는 7월 5일까지 관내 초·중·고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금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금연 골든벨, 나비콘서트, 흡연예방 체험부스 등 학교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흡연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지하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 내용은 기존의 강의식 흡연 예방 교육에서 벗어나 학년별 눈높이에 맞춘 참여식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자연스러운 레크레이션, 서바이벌 퀴즈, 토코식 공연, 체험부스 등 다채롭고 재미있게 진행돼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집중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전자담배의 보급으로 청소년들의 흡연 시도 연령이 더욱 낮아짐에 따라 교육 전 흡연자의 폐 모형, 리플릿 등으로 그 심각성과 위해성을 알리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적극 홍보해 언제라도 편견 없이 금연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장여진 영양군 보건소장은 "흡연 시도 나이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대상자에게 맞춤형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해 지역 사회의 흡연율을 낮추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권윤동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고운문학대학, 수강생모집 '고운의 흔적을 따라' 개설

의성 최저위문학과 부설 고운문학대학은 의성군과 고운사 후원으로 '고운의 흔적을 따라'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지난 7일부터 6월 25일까지다.

고운문학대학은 오는 7월 3일 시작해 12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최치원의 사상, 문학, 행적에 대해 연구한 전문가들이 7회의 강의를 진행하고, 4회의 최치원 유적지에 대한 답사로 구성된다.

신라 말에 살았던 최치원은 사상가·문필가·정치가로 해동문종(海東文宗)이라 평가된다. 최치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갈등이 일반화된 현대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강좌라 할 수 있다.

수강을 원하는 분들은 최치원 문학관(054-834-8200)으로 문의 또는 최치원 문학관 홈페이지(<http://www.gounccw.or.kr>)에서 교육일정 및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박재성기자



영주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영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임시회 일정을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1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바선거구, 풍기, 안성, 봉현)이 있다.

특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50억 원에서 1조 1838억 원으로 11.15% 증액된 예산안이 제출됐다. 주요사업으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171억 4500만 원, 가흥 2동 적십자병원~명품요양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60억 원, 스포츠컴플렉스 조성사업 50억 원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다.

심재연 영주시 의회 의장은 "동료 의원님들께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꼼꼼히 확인해 시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세심한 심사를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전상기기자

고령군, 전국 최고 우곡수박 본격 출하

우곡그린복합영농조합법인 수박 직판장 개장

고령우곡 수박이 본격적으로 출하된다. 지난 10일 우곡그린수박영농조합은 고령우곡그린수박 직판행사를 가졌다.

우곡그린수박영농조합법인 집하장에는 법인 대표 및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고령 우곡수박은 5월 하우스 수박으로 전국 제일의 맛과 품질은 널리 알려져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호한다.

낙동강변의 사질양토에서 뛰어난 기술과 친환경 경적으로 재배해 수경 45일 후 수확이 가능하나 50~60일 동안 충분히 익혀서 출하하기 때문에 아삭아삭한 식감에 13brix를 웃도는 고당도를 자랑한다.

2011년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으로부터 '고령 수박 지리적표시제 73호'로 등록돼 고령의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로 인증받았다.

우곡그린복합영농조합법인은 지난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수박 직판장을 운영한다.

우곡그린수박영농조합법인(054-955-8940)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배영백기자



영주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 열려

영주시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및 연등축제가 지난 11일 열렸다.

영주시 4.8봉축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신도와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각등 만들기 체험 및 공양부스가 운영됐다.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1부 봉축법요식과 2부 제등(연등)행렬, 3부 점등식 및 등담돌이 순으로 진행됐다.

제등행렬에는 법요식에 참석한 각 사찰 신도들이 영주초등학교에서 출발해 구성오거리, 꽃동산 로터리, 가흥교, 마애여래삼존상 앞까지 긴 줄을 이으며 질서정연하게 행진했다.

어둠이 내리고 색색의 연등이 더해져 미처 참석하지 못한 신도와 시민들이 행렬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때 행렬참가자도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도 두 손을 모아 서로 함성했다.

봉축위원장 홍경 스텝은 "이번 연등축제를 통해 길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연등불처럼 부처님의 지혜가 널리 퍼져 시민들의 마음도 환하게 비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 자리가 종교를 뛰어넘는 화합과 나눔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전상기기자

2024년 성주군 고등학교 해외교육투어 오리엔테이션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회는 지난 9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2024년 성주군 고등학교 해외교육투어에 참가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학부모 60여 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올해 2회차를 맞은 '성주군 고등학교 해외교육투어'는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성주, 성주여고, 명인고 재학 중인 30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오는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8박 10일간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및 캐나다 주요 도시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해외투어일정 안내와 유의사항, 비자발급 안내, 참가 학생들의 조 편성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투어는 작년의 인기에 힘입어 참가 인원 및 투어 일정을 확대하는 등 교육투어를 체험했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보완해 더욱 세밀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맞을 예정이다.

이병환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이사장은 "고등학교 해외교육투어를 통해 학생들이 더 넓은 세계를 몸소 체험하고 큰 꿈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장학회에서는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재훈기자

육군3사관학교 간부·생도 조깅데이 '첫 출발'

육군3사관학교 간부 및 생도 70여 명은 지난 11일 오전 8시 영천강변공원에서 조깅데이를 가졌다.

의성군,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및 연등행렬 성료

"가르침의 실천으로 행복한 의성"기원

의성군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및 연등행렬을 지난 8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의성불교사암연합회 주최, 의성불교신도연합회 주관, 의성군 후원으로 의성문화회관 및 의성읍 시가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수 군수, 박형수 국회의원, 의성불교사암연합회(회장 자원스님), 의성불교신도연합회(회장 권혁만)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군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평화와 평등의 세계를 구현하는 불국토를 이루기를 기원하며 육법공양, 삼귀의, 찬불가, 봉축사, 고운사 등 운송님에

봉화군 버섯산업의 미래 약용버섯종균센터 개소

국내외 농산물 판로 활성화 유통기업과 소통·협력 강화

영천시시는 지난 8일 메가마트 부산 동래점을 방문해 영천시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생산자와 유통기업 간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기문 영천시장장을 비롯한 영천시 관계자들과 농업유통분야 부서장, 김건형 메가마트 본부장과 홍보팀장, 농산팀장, 농산물 담당 바이어 등 메가마트 주요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방안 및 생산자와 유통기업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천시와 메가마트는 국내 대형마트를 통한 농

산물 유통뿐만 아니라 농식품 해외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메가마트는 국내외의 다수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농식품 및 먹거리 유통 분야의 글로벌 유통 대기업으로 기존 미국 애플라타, 서니베일, 프리몬트에 이어 2024년 올해 미국 세라몬테점 개점을 앞두고 있다. 또한, 메가마트 부산 동래점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최초의 대형마트이며, 주말 기준 하루 최대 2만 명의 고객이 방문하는 국내 단일점포 기준 최대 규모의 식품 전문매장이다.

김건형 메가마트 본부장은 "포도, 복숭아 등의 과일류와 마늘 등의 영천시 농특산물은 우수한 품질과 다양한 품목으로 소비자 호응이 좋고 경쟁

봉화군 재해복구사업장 추진실태 점검회의

봉화군은 지난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박현국 봉화군수 주재로 시설사업별 담당과장 및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재해 복구사업장 추진실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집중호우 수해지역에 대한 봉화군 주관 재해복구 사업장 398곳과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림 피해복구사업장 41곳에 대한 추진 상황 전수 점검으로 이뤄졌다.

특히 급변 우기 대비 주요공정 마무리 등 조기 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만회 대책, 향후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최근 5월 집중호우로 남부 지역의 피해가 발생했고 급변 여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에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며 "재해복구사업의 조기 준공을 통한 사전대비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부 및 생도들은 강변공원 무대 앞에 집결해 준비운동을 한 후, 강 하류 영천교 방면 돌다리를 지나 보라유채밭과 영화교 돌다리를 거쳐 집결지까지 약 3.8km 코스를 달렸다.

조깅에 참가한 생도는 "항상 학교 안에서 정해진 루트로만 뛰다가 자연 속에서 꽃과 강을 보며



강조했다.

또한 배진태 봉화부군수는 추진사항을 해당 팀별로 점검하며 "재해복구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선제적 재난 대응으로 급변 수해 대비에 총력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봉화군은 5월 기준 재해복구사업 공정을 85%로 소규모 복구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 내 준공하고 대규모 사업장은 우기 전 주요 공정 마무리를 목표로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상기기자

시민들과 함께 달리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장은 "조깅 후에 지역의 식당, 영화관, 카페 등에서 자유시간을 보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주길 바란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최은하기자

게 가르침을 청하는 청법가, 의성읍의 주요 시가지를 도는 연등행렬 순으로 진행됐다.

의성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인 자원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오늘 봉축법요식 및 연등행렬의 인연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께 다가가는 큰 인연을 맺어 가기를 기원합니다"고 말했다.

김주수의 영천군수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며 "가르침의 실천으로 행복한 의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기자

력이 있다"라며 "대형마트 입점, 미국 수출 등 다방면에서 영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장은 "농특산물 생산자와 유통기업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함께 성공을 거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영천시와 메가마트가 함께 대형 유통사와 농가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메가마트 부산 동래점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영천시 농특산물 대도시 직거래 행사'에서는 사과, 딸기, 와인, 작약꽃, 과일음료, 떡볶이 등 영천의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70여 품목을 부산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농산물 홍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영천시 한의마을에서 개최되는 영천한약축제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은하기자

성주 참외&생명문화축제 즐기며 산림휴양시설도 이용해 보세요!

성주군에서는 '숲에서의 힐링'을 추구하는 수요를 바탕으로 가야산야생생물원, 독용산자연휴양림, 등산로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가야산 해발 550m에 위치한 식물원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벌개미취 '야생화군락지'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편안한 숲길 체험을 위한 '가야산무장애나눔길' 및 꽃비가 내리는 콘텐츠 정원인 '하우동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성주호와 독용산성 등의 수려한 경관이 조망되는 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과 수상 레포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휴양공간으로 총 19객실에 어린이놀이시설과 바비큐장, 편백숲 산책로를 겸비하여 도시 생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산림욕으로 달래며 즐길 수 있는 휴양숙박시설이다.

또한 성주군의 대표적 숲길인 초전 칠선~용성간 숲길, 월항인촌리 선석산 숲길 등 총 22개 노선 64.69km의 숲길은 건강증진 및 화합의 장소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김진철 산림축산과장은 "5월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를 즐기며 산림휴양시설에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재훈기자



예천군, '꿀마실' 스마트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수상

경북농업기술원이 주최한 2024 경북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예천군 용문면 '꿀마실' 권운자 대표가 스마트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북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는 온라

인 마케팅, 라이브커머스 등 농식품 생산유통과정의 정보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농업·농촌 현장의 정보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권운자 대표는 귀농해 양봉을 시작한지 12년

되었으며 스마트 콘텐츠를 활용해 프로폴리스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홍보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지역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정호 소장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 경북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발대식' 개최

해 노력하는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은 미래 민주주의의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11일 영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누리관에서 '2024 경북도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도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과 지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기법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청소년 자치기구다. 최은경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청소년들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을 위

상주시, 도심 재구조화... 압축도시 건설

농산물품질관리원 중앙파출소 이전...

상주시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원도심 기능 강화에 따른 압축도시를 건설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는 탓이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국가적 현안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옛농우마실터 매입 지역 거점 마련

시는 농우마실 부지를 매입, 압축도시를 실현한다.

무양동 11-1 일대 구 농우마실 터는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 근처의 상가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장기간 제구실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노후화된 빈 건물은 상주 도심 입구에 자리 잡아 흉물로 전락해 도시 미관을 해쳐 치안과 안전상의 위험까지 안고 있다.

시는 이런 유휴 터를 적극적으로 매입, 도시의 환경정비는 물론, 지역 이미지 제고에 힘쓴다.

고령인구가 높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시니어 복합센터를 건립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역량을 강화,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거점을 마련한다.

시는 노후화된 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의 이전 신축 계획과 연계해 구 농우마실 터의 이전

을 유도, 터미널 인근 다중 밀집 지역의 안전을 강화한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이전

시가 산업 구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녔음에도 여전히 농업 중심 도시인 것은 변함이 없다.

지난 연말 기준 상주시의 경영체 등록수는 2만,650명으로 그중 직불제 대상 농가가 1만 9200여 명이다.

도내 세 번째로 많은 숫자이다.

상주시가 여전히 농업도시임을 의미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이하 농관원)가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매년 직불제를

위한 경영체 등록과 관리를 위해 많은 농가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민원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시는 흉물로 방치돼 있는 구 홈마트 부지를 상주읍원에서 경매절차를 통해 28억3000만 원에 터를 매입했다.

애초 28억8000만 원의 감정가액 대비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평가다. 시는 농관원과 국공유재산 교환 방식으로 신축 터를 이전한다. 버스터미널 주변과 옛 홈마트 주변은 상주시 내 가장 변화한 중심지다.

시는 적극행정으로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도시를 새롭게 정비, 도심공동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도시 경쟁력 강화와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한다. 이경호 기자

예천박물관, 사랑받는 문화유산 '에이요(愛伊要)청단' 결성 기대감

예천박물관은 세계유산인 예천청단놀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대중화하기 위해 퍼포먼스 그룹 '에이요청단'을 결성한다.

예천군의 문화역량 강화와 지역 문화인력 육성을 위한 특별 사업으로, 예천박물관이 운영을 맡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단원 모집 기간은 5월 25일까지며, 모집 인원은 15명이다. 모집인원 초과시 오디션은 다음 달 2일 10명을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되며, 오디션에는 춤과 음악에 관심 있는 예천군 거주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선발된 단원들에게는 전문가 교육과 외부 전문가 자문이 제공되며,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천청단놀음의 원형과 그 의미를 배우고 현대적 해석과 표현 방식을 모색한다. 안명욱 기자

구미시, 도민체전... 젊고 역동적인 도시 저력 뽐냈다

개막식 3만 5000명 관람 성공개최 희망 가득채워

구미시는 10일 시민운동장에서 선수단과 관람객 등 4만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화려한 서막을 올렸다고 밝혔다. 개막식 막바지에 진행된 화려한 미디어아트 쇼와 1천 대를 활용한 드론 쇼는 일자리 많은 도시, 힐링과 재미를 즐기는 낭만 도시, 풀앤 도시 등 구미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며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한 시민은 "눈 앞에 펼쳐진 미디어아트를 보면서 첨단 도시 구미시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고,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감동했다"며, "드론쇼, 최정삼급 가수 공연 등 즐길 거리가 많아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했다.



대회는새 희망 구미에서 하나 되는 경북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반도체 특화단지과 방산 혁신클러스터, 교육발전특구 등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구미에서 경상북도 260만의 열망을 담아 진행된다.

개막식은 25개 읍면동 순회를 마치고 도착한 성화를 시작으로 트로트 공연과 구미시립무용단의 육고무 공연, 뮤지컬과 댄스팀의 무대가 펼

쳐져 식전 분위기를 조성했다. 선수단 입장 이후 실업팀 선수와 체육 꿈나무, 외국인 근로자가 성화를 전달했다. 체육인 가족을 최종 점화자로 선정해 체육과 가족,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체육대회의 의미를 전했다.

'다져나가정 2.1존'을 무대 전면에 배치해 출산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했고, 시민운동장 주변에는 야생화 전시, 찾아가는 미술관 등 문화행사와 함께 시민들이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푸드 트럭과 매점을 운영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시민운동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시는 구미만의 정체성과 변화, 혁신을 선보이기 위해 주 경기장 메인 파사드를 설치하고, 메인스타디움 진입 회전교차로와 구미나들목 진출입로 상징 조형물을 통해 다이내믹한 구미를 알렸다. 이은진 기자



수니와 칠공주 리더 박점순 할머니가 정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에서 학도병의 희생을 기리는 랩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대구지방보훈청 관계자들이 위로했다.

해 영천 메모리얼파크, 상주 화령장전투전승기

도, 24 행안부 우수마을기업 9년 연속 선정

지역자원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역문제 해결 우수사례 확산

경북도가 추천한 마을기업 2곳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우수마을기업' 선정 심사에서 모두 선정됐다.

포항시 '동네언니협동조합', 구미로컬푸드협동조합 2곳은 사업비 7000만 원과 홍보 및 판로 지원을 받는다. 우수 마을기업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에서 추천한 고도화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 조건은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등 마을기업 우수사례의 확산에 이바지한 마을기업이 선정된다.

2024 우수마을기업 선정심사에는 전국 32개 마을기업이 도전해 서면 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6개 마을기업이 선정됐다.

이번 심사에서 '동네언니협동조합'은 행안부로부터 우수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아 도는 9년 연속 우수마을기업을 배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포항시 '동네언니협동조합'은 구도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주민들에게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는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설립됐다.

주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강좌와 원데이 클래스, 주민 동

아리와 소규모 모임을 위한 무료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플라마켓, 지역 농산물 공동구매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주민들과 함께 취약계층 대상 나눔활동 및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는 지역 어르신 카페 나들이 행사인 '어르신 행복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구미시 '구미로컬푸드협동조합'은 지역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로컬푸드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에 설립됐다.

146개 지역 중소농가와 협력해 소비자에게 신선 농산물을 공급하는 직매장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유통 비용을 최소화해 농가 소득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매주 토요일에는 지역 유휴공간에서 50여 농가가 참여하는 농민직거래장터를 개최하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로컬푸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환경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하며, 매년 김장 나눔 행사와 로컬푸드 나눔 행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황인수 경북도 사회적경제민생과장은 "다양한 우수모형을 발굴해 전국적인 마을기업의 성공 사례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수니와 칠공주, 영덕 해변서 눈물 보인 이유는?

평균 연령 85세의 칠공주 할머니합창단 수니와 칠공주는 최근 정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에서 학도병의 희생을 기리는 랩을 하면서 눈물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대구보훈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수니와 칠공주의 재능기부를 통해 대구·경북의 현충 시설을 알리는 뮤직비디오와 호국보훈을 노래한 랩을 제작하고 있다.

할머니들은 칠곡군 호국평화기념관을 비롯



홍준표 “좌우 공존 선진대국시대 만드는게 마지막 꿈”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좌우가 공존하는 선진대국시대(先進大國時代)를 만들어 가는 게 내 마지막 꿈”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

으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본격화된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의 극단적인 대립구조를 타파하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 시대를 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 극심한 대립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지난 20여 년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며 “나는 이러한 대립구조를 타파하고 통합하는 상위 개념으로 국익(國益)을 내건 지 10여 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산업은행, TK신공항 SPC지원 속도 낸다

신공항 SPC 조속 구성 사업 차질 없이 진행

대구시는 산업은행과 대구은행이 대구시 공항건설단에 각 기관 PF 전문가를 파견하고 SPC 구성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21일 대구광역시와 8대 주력은행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4월 3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이 대구시청을 방문해 홍준표 시장과 면담을 가지며 확약한 사항이다.

지역 대표은행인 DGB대구은행 황병우 은행장도 지난 4월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TK신공항 건설사업 성공지원 TFT’를 구성하고 사업에 대한 총력 지원을 결의했다.

13일부터 산업은행에서 대구시로 파견되는 최원환 부장은 PF3실장을 역임하는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관련 실무 경력이 풍부한 인사이다.

대구은행에서 파견되는 서종민 차장 또한 부

동산 금융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실무를 다수 경험한 인사로 TK신공항 사업의 전문 금융자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파견되는 민간 전문가는 ‘TK신공항 금융협력관’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되며, 이후에는 대구시와 원소속기관(산업은행·대구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파견연장 또는 대체인력 파견 등 지속적으로 신공항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TK신공항 금융협력관의 주요 업무는 PF 전문가로서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신공항 사업 관련 PF 지원 및 PF 시장 동향분석 △신공항 사업 관련 사업성 검토 및 금융자문 △대구시와 원소속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지역기업 성장지원·금융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지역의 대표은행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구은행이 성공적인 TK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와 협업을 시작한 만큼 신공항 SPC를 조속히 구성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지역 최대 반려동물 축제 다양한 체험으로 즐겨요! 대구시가 주최하고 엑스코, 대구광역시수의사회, 한국펫시료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대구 펫&갯쇼’가 10~12일까지 3일간 엑스코 동관 전시장에서 열렸다. 다양한 문화체험과 함께 반려견과 반려묘 관련 총 170개사 350개 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의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사진=대구시제공>

국민의힘, 비대위원 인선... ‘친윤계’ 전면 배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의총 추진·의결 거쳐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대책위원 등 주요 당직 내정자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선출직 비대위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임태영(충북 제천·단양)·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을 내정했다. 경기 포천·가평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김용태 당선인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 강동갑에서 낙선한 전주혜(비례) 의원도 비대위에 합류하게 됐다.

정책위의장에는 3선에 성공한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사무총장에는 3선에 성공한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내정됐다.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은 당연직 비대위원이다.

내정된 비대위원은 대부분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김용태 당선인은 한때 친이준석 계로 꼽혔으나 개혁신당 창당에 동참하지 않고 잔류했다.

이밖에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

대표에 재선에 성공한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오전 삼일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내정된 비대위원에 대한 임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각각 의원총회에서 추인과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무총장은 비대위 구성 이후 비대위원회의로 임명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윤 선임대변인은 “현재 시급한 현안인 민생안정을 위한 ‘일하는 비대위’를 구성 하고자 했다”며 “이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능력 있고, 당내의 소통이 가능한 인사들로 비대위원과 주요 당직자를 임명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수도권, 충청, 강원 등 국민의힘이 귀를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으로 인사들을 구성했다”고 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비대위원 대부분이 친윤계라는 평가가 있을텐데 뭐가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일하는 비대위를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됐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는 점을 평가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목회와 원외 당협위원장 임시 대표단이 배제됐다”는 지적에는 “인선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우수 신제품 조기 보급 농가소득 향상

경북도, 국내 육성 마늘·양파 신제품 지역적응성 평가회

경북농업기술원은 의성군 봉양면(의성군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농촌진흥청 및 각도 농업기술원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육성 마늘·양파 신제품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

평가회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신제품 우량계통 지역적응성 및 이용촉진사업으로 국내 육성 마늘·양파 신제품의 지역적응성을 평가해 지역에 적합한 신제품을 보급 확대하



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회에서는 경북지역 한지형 마늘 주생산지인 의성군에서 실증 재배한 국내 육성 마늘 4계통, 양파 18계통을 대상으로 생육, 수량성, 병해충 발생 정도 등 품질에 대해 다각적으로 평가했다. 이들 계통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육성

한 마늘 ‘원고57041호’는 기존 재배 마늘에 비해 키가 16cm 이상 크고, 염초 직경이 8%가량 굵으며, 병충해 피해도 적어 평가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경북도가 마늘·양파 주산지인 만큼 품종의 지역적응성 등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경북지역에 적합한 우수 신제품 조기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마늘·양파 주산지로 2024년 전국재배면적의 각각 19.6%, 14.5%를 차지하며 2023년 생산량은 7만 6천 톤, 23만 5천 톤을 생산하고 있다.

도, 원자력 인재 양성에 탄력... 국비 170억 확보... 인재 양성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에너지기술 공유 대학’ 에너지 인력양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70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앞으로 6년

간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경북도,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가 원자력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지역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추진한다.

사업 주요 지원 분야는 원자력 분야로 4개 광역 지자체 소재 7개 대학(포스텍, 한동대, 부산대, 동의대, 울산과학기술원, 경상국립대, 인제대)과 4개 지역혁신기관(경북, 부산, 울산, 경남 테크노파크)이

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지빌리티 등 지역 에너지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교과목 공동 개발, 학점·취업 연계형 현장실습, 채용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도는 원자력 전주기 중에서도 특히 △차세대 원전 △SMR 원자로 시스템 △원자력 수소분야를 중점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미래원자력기술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정한 슬로건입니다.

Opinion

신문 및 이 달 라 지 면 신 문 내 용 도 달 라 지 야 합 니 다 대 구 광 역 일 보 는 독 자 가 숨 까 지 생 각 합 니 다



대구광역시보 www.dgy.co.kr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발행인 김영숙 편집인 김성웅 부사장 조여은 편집국장 김현석

지역번호 053 대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칼럼

국민성의 타락을 걱정한다

민계식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우리나라 말 중에 '짜가지 없는 인간'이란 모욕적인 말, 즉욕이 있다.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 품성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욕이다.

춘추전국시대부터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 품성으로 '예의염치(禮義廉恥)'의 4가지 덕목을 꼽아왔다.

예절, 의리, 청렴, 부끄러움을 아는 태도다. 조선 시대에는 인간답지 못한 못된 사람을 '사(4)가지 없는 인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대단히 큰 욕이었다고 한다.

국어음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큰 난리를 겪으면 언어가 된소리(경음, 硬音)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 시대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난리를 겪으며 '사가지'가 '짜가지'로 경음화했다는 얘기가.

필자는 요즘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인간의 기본 품성을 잃고 저질로 타락하는 것을 통탄하고 걱정한다.

주로 저질 정치인에 기인하는 바 크지만, 그들만 탓할 것도 아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몇 가지 일을 돌아켜보자. 학자들이 논문을 표절해도 그만이고, 교수들이 서류를 위조

해 입시 부정을 저질러도 그만이고, 공직자가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그만이고, 시민운동가라는 자가 불법 대출로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사도 그만이고, 역사학 교수라는 자가 국민 전체를 역사적으로 욕보이는 성 관련 개변을 마구 늘어놓아도 그만이고, SNS에 저질 거짓 막말들이 난무해도 그만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민은 이런 저질 인간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했다.

위에 든 몇 가지 사례는 '짜가지 있는' 인간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몰상식하한 범죄행위인데도 국민은 어찌하여 이런 저질 인간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가!

우리나라 국민은 이 정도로 사회적 범죄에 무감각해지고 저질이 돼 있는가? 빼도 박도 못하게 드러난 잘못이나 허물을 탓하지 않거나 개의하지 않고 추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류의식, 공범자의 의식의 발로다.

유권자들도 이미 폭넓게 감염됐다는 증거다. 온 국민이 반세기 넘도록 힘겹게 쌓아온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성취와 보람이 머잖아 일시에 사라지고,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저질 국민으로 경멸 받게 될 것이다.

얼마 전 일본의 한 중학교 교장 선생이 커

피 때문에 면직당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이 교장 선생은 편의점에서 보통 크기(regular size) 커피를 주문하고 받은 컵을 커피 자동판매기에 넣고 실수로 대용량(large size) 단추를 눌렀는데도 커피가 넘치지 않자 이후에도 계속 보통 크기 컵으로 대용량 커피를 내려받아 마시다 들끓었다.

보통 크기와 대용량의 커피값 차이는 고작 70엔이고, 총 7차례의 범행으로 490엔(약 4300원)의 부당 이득을 본 죄로 교장 선생은 30여 년을 봉직한 교단에서 쫓겨나고 2억원이 넘는 퇴직금도 못 받게 됐다.

동정론도 일부 있었지만 엄연한 범죄라는 여론에 압도됐다고 한다. 이게 정직을 강조하는 선진국 일본의 저력이 아닌가 한다.

이 기사를 보며 최근 들어 급속히 병들어 가는 우리 사회를 자연스레 되돌아보게 된다. 인류의 심성은 자유, 평등, 공정을 향해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이 역사의 방향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 역사상 지금까지 사회가 부패하고 잘못과 일탈이 일상이 된 시대가 또 있었을까? 잘못과 일탈이 일상이 된 비정상적인 사회상을 바로잡고 예의염치를 아는 정상적인 인간의 사회로 되돌려놔야 한다.

차체에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기준을 공정과 평등과 정의 차원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 누가 해야 하는가? 우리가, 국민이 해야 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한다. 필자가 수없이 주장하고 절규한 바다. "국민이 현명해야 한다!"

오늘의 정치

민주당은 더 이상 나쁜 정치로 해병대원의 순직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최준석 대변인

나쁜 선동부터 배울 것이 아니라 진짜 정치를 배워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천막부터 치고 완력을 과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부터 보여서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민주당은 거대 의석의 원내 다수당입니다. 이미 입법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폭주, 독주를 일삼고 있으면서

이제는 초선 당선인들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는, 못된 협박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다른 생각, 의견을 가진 이들과 대화와 토론을 하고 이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그저 정치 선동을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길거리로 나가면 됩니다.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의 처리 과정에서 특검법은 사법 시스템에서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하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점찍은 인사들로 채워진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면 해당 특검은 진상 규명에는 관심조차 없을 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당장 민주당부터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법외권 세력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있습니다.

'명계' 앞에서 '소주'를 떠올리는 대통령의 민생 행보는 공허합니다



더민주당 강우정 원내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다시금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며 전통시장을 돌아보며 명계를 파는 상인 앞에서 대통령이 건넨 말은 "소주 한 병만 딱 있으면 되겠네."였습니다.

혹독한 경기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인 앞에서 술안주부터 떠올린 대통령의 모습은 대과 가격에 대한 물이해만큼이나 답답합니다.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술이 아니라 위로와 공감, 책임 있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광주와 제주를 도는 민생토론회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회당 평균 1억 4천만 원이 드는 행사에 유령 회사들과 수의계약을 남발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예고했지만 해명조차 없습니다. 또 국민적 의혹을 무시한 채 자의적 민생 구제의 독자 행보를 고집하는 형국입니다.

최근 발표된 갤럽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4%에 그쳤습니다. 취임 2년차 지지율은 87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민생'입니다.

민생은 술안주 쇼핑이나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에서 시작됩니다. 총선 결과와 지지율이 보여주는 민생에 대통령은 잃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조치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줄 민생회복지원금 논의에 정부와 여당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나의제언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는 범죄



청도경찰서 정세윤 경감

오랫동안 진화된 수법으로, 어쩌면 생활속에서 조심해야 할 바이러스처럼 피싱 범죄는 여전히 우리곁에서 활개를 치는 듯하다.

마지막까지 이득을 보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인 듯, 피해금액의 상한선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중 잠금장치(?)를 통해 수법 또한 의심을 견어내기 위해 마치 발악을 하는 듯하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지만 높아진 만큼 자신의 신용도를 문제삼는 것에 대한 민감도 또한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피싱범죄꾼들이 약점으로 삼는 범죄방식의 포인트이다.

금융감독원 및 경·검찰 사칭의 범죄는 어쩌면 이제 고전적인 방식이라고 할 정도로 더 이상 속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임을 바로 직감하고 전화를 끊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상업적 문자가 개인에게 무작위 발송될 수 있음을 악용하여 그에 편승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히 처음부터 금융감독원 또는 검사를 사칭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예를 들자면 'OO카드 발급 완료' 문자를 전송하고, 이 문자를 확인한 피해자는 그 발급내용 문자를 재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하게 되고, 이에 금융감독원 또는 검사를 사칭한 범죄자는 명의도용과 관련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심리적으로 압박을 준 후 현금 또는 수표를 요구한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듯 정신을 빼놓고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이다.

속지 않을 것 하지만 고령자나 인터넷을 잘 접하지 않는 세대들에겐 여전히 피해를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최초 원시적인(?)수법에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 같지만 조금 더 진화된 형태로 여전히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홍보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온라인 홍보 반경이 아무래도 적게 미치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오프라인 홍보도 절실한 듯하다. 단 한 건의 피해도 피해금액이 커짐에 따라 범죄피해당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그 보다 몇 배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몇가지 범죄예방 수칙을 짚고 보면 한다.

첫째, 의심스러운 수신 문자 링크 클릭 금지 둘째, 자녀들로부터 오는 연락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녀에게 우선 그 내용을 유선으로 명확히 확인하기

셋째, 카드사로부터 온 문자는 카드사에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기 등이다.

요점은 일단 문자나 연락의 출처에 대해 의심하고 그 내용을 유선으로 확인을 하자는 것이다.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그 회복이 불투명하거나 회복기간이 상당히 길다.

경찰또한 그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예방만이 완벽한 최선책임에 분명하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대구.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100세 건강법

화사한 봄날 무기력감... 우울증 의심

'스프링 피크' 발생...
증상의심 병원 찾아야

봄철,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보통 '봄을 탄다'며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계절성 우울증'을 의심해 보고 의료진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들에 따르면 1년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계절이 봄(3~5월)이다. 봄철 자살률이 오르는 건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으로 이를 '스프링 피크(Spring Peak)'라고 부른다.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봐도 최근 3년간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1년 3월, 2022년 4월, 2023년 5월이었다.

스프링 피크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봄철 우울증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우울증 환자는 2018년 약 75만 명에서 2022년 약 100만 명으로 33%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불안장애 환자도 약 69만 명에서 약 87만 명으로 26% 늘었다.

의학계에서는 입학·졸업·취업 등 사회적인 변화나 봄을 만끽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우울증은 물론 '자살생각'을 키운다고 보고 있다.

우울증이 생기면 침울한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는다. 침울한 기분은 쓸쓸함, 슬픔, 불안, 절망, 허무, 답답함, 초조함 등의 감정으로 표현된다.

누구나 우울할 수 있다는 통념 때문에 방치될 수 있으나 조기 진단과 재발 방지 치료가 핵심인 질환이어서 증상이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장진구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봄은 1년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기라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신건강 관리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우울·불안은 누구에게

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병인 만큼 먼저 환자 스스로 벗어나려는 강한 의지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우울증의 치료법에는 △생활 습관의 개선 △약물치료 △심리치료가 있다. 약물치료는 환자 증상, 약물의 부작용, 과거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 처방비용 등을 고려한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더라도 치료 효과는 투여 직후가 아닌 약 2주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투약하는 게 중요하다.

심리치료로는 인지 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를 진행하는데, 환자의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수정하면서 건강한 행동으로 변화를 촉진해 증상을 개선한다.

약물치료가 어렵거나 거부감을 보이는 환자를 위해 뇌 국소자극 기기를 이용한 치료도 활발한데, 대표 치료법으로 경두개자극기자극술(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or, TMS)이 있다.

이 방법은 자기장을 발산하는 헬멧을 착용해 뇌의 신경 활동, 전전두엽 피질을 활성화하고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의 분비를 복돋는 원리다.

이밖에도 심리교육을 받거나 햇볕을 충분히 받을 야외 활동,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면 우울·불안 증상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갑작스러운 일상 변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느린 변화를 권장한다.

한규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간의 대화 등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병이라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기분이 평소와 같지 않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교수도 "사회적으로 청년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관련 정책이나 지원기관의 연계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울진사격실업팀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쾌거

제25회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울진사격실업팀이 제25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에서 2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울진군청 사격실업팀은 여자일반부

경북드론고, 도민체전 씨름 군부 고등부 준우승



미래를 책임질 전문 기능인
건강한 체력바탕 인재 양성

경북드론고 씨름부가 군부 고등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3~6일까지 구미에서 열린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사전 경기에서 이같은 성적을 올렸다.

"2023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개인전 3위, 2023 경북씨름왕 선발대회 개인전 2위 및 단체전 3위 수상에

빛나는 씨름부는 학교내 야간동아리 활동을 통해 선후배가 함께 꾸준히 훈련하며 성장해 온 부서이다. 경북드론고 등학교는 학생들의 특기와 성장을 지원하는 야간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씨름 및 체력단련), 밴드, 공공관련 동아리들(부서관, 드론수색, 드론정비, 3D프린터, 전기/전자기능사, 영상편집, 전공심화 등)이 개설,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야간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우는 기

회가 되기도 하며,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배운 내용들을 심화하고 비슷한 취미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병태 교장은 "운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청도군 씨름협회에 감사사를 표하며, 미래를 책임질 기능인들로서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전인적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자일반부 10m 공기소총
단체전 2연패 달성 위업

10m 공기소총 단체전 2연패, 여자일반부 10m 공기소총 개인전 1위를 차지했다.

단체전 부분의 여자일반부 10m 공기소총(권은지, 장정인, 모수정, 조은서)은 작년 대회신기록을 경신(1882.2점)했다.

여자일반부 10m 공기소총(이수민, 추가은, 백지원은)은 2년 연속 준우승을 기록했다.

개인전에서도 여자일반부 10m 공기소총 부분에서 추가은 선수가 1위, 여자일반부 10m 공기소총 부분에서 권은지 선수가 2위를 달성, 울진군청 사격실업팀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끌어냈다.

제25회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는 381개 팀, 2,598명의 선수가 출전, 2025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치러졌다. 국가대표는 종목별 5명을 선발, 4차레 더 경기를 치른 후 6번의 경기 중 상위 5개의 기록 순으로 선발한다.

이정수 기자



김세영, LPGA 파운더스컵
공동 3위 도약...

김세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3라운드에서 상위권을 달렸다.

김세영은 12일(한국시각)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의 어퍼 몽클레어 컨트리 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2개를 적어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중간 합계 8언더파 208타가 된 김세영은 넬리 코르다(미국), 가브리엘라 러펠스(호주)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김세영은 지난 시즌 두 차례 톱10 진입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올 시즌에는 벌써 두 번이나 톱10에 진입하는 등 한층 나아진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김세영은 2번홀부터 8번홀까지 4타를 줄이며 순항하다 9번홀(파5)에서 보기를 범했다.

조여은 기자

의성군

반려견은 다 모여라

의성 펫월드!

41,000m² 규모

전국최초·최대
반려동물 테마파크

의성 펫월드

QR CODE: @UISEONG_PET_WORLD